

제 111 호

KC 뉴스레터

발행일 2019년 04월 | 발행주관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 제보 및 문의 지속가능경영팀 여나래 대리(narae@green-kc.com)

In this issue ;

- 01 KC코트렐 KCVCS설립
- 02 KC그린홀딩스 2019 동계 인턴프로그램
유양기술 재능기부활동
- 03 KC코트렐 (주)퓨어에코텍과 공동사업 협약
KC환경서비스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KC그린소재 2019 임직원 워크숍
- 04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이사회 개최
KC코트렐 제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 KCVCS 설립

KC코트렐은 지난해 12월 14일 신규법인으로 KCVCS (VOCs Control System)을 설립하였다. 김은연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0여 명이 상암동 디지털큐브 21층에서 근무하며, VCS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설비인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의 설계, 제작,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KCVCS의 RTO는 VOC의 자체발화에서 남는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생산라인에도 투입할 수 있는 자원순환설비로 평가되어, 효율면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14일에는 KCVCS 부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남부지역의 수요가 많은 RTO의 특성상 부산 사무소는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KCVCS는 이번 3월에 열린 독일의 European Coating Show에 참가하여 VOC의 규제가 강화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고객사를 만나 유럽 진출의 잠재적



인 기회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반도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RTO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KCVCS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끝)



KC그린홀딩스

2019 동계 인턴 프로그램

KC그린홀딩스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청년들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CSR활동의 일환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특히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진행되며, 환경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번 2019 동계 인턴프로그램은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되었으며, 환경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계사 투어 프로그램 및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 실제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점들을 인턴들이 각자의 전공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개별 및 공통 과제가 주어졌다. 2019 동계 인턴 프

로그램에 참여한 5명 모두 개별 과제와 공통 과제를 성공적으로 발표하고 지난 2월 22일 수료식을 끝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다. (끝)



유양기술 재능기부활동

“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유양기술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광양시 관내 노인복지 가스 시설을 점검, 수리하는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재능기부활동은 지난해 강릉시 펜션 보일러 배기 가스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와 구정 연휴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양시 관내 노인정 및 마을회관 63

곳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스레인지 등 주방 기구와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하여 보일러 연통이 이탈하거나 파손된 곳, 배기 가스 누출방지용 실리콘이 떨어진 곳, 가스밸브 자동차단 타이머가 미 설치된 곳, 가스호스 노후 등 화재, 폭발, 중독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것을 총 46건 발견하였다. 그 중 38 건은 즉시 조치하였고, 8건은 자재를 확보하여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유양기술의 이주덕 전무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한 이번 재능기부활동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KC코트렐

(주)퓨어에코텍과 공동사업 협약

KC코트렐은 지난 2월 13일 주식회사 퓨어에너지와 공동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수년간 지속된 국내외 미세먼지 이슈는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정부 및 관련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티 더스트(Anti-dust)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기정화필터 연구 및 제조회사인 (주)퓨어에너지와 KC코트렐 간 공동으로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해결하고 공기정화 시장을 선점할 목적으로 양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버스 탑재 미세먼지 저감 설비의 사업화에 따른 계약 및 기술, 영업,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시범사업 성공 시 향후 공공기관 조달에 있어 시장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KC환경서비스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KC환경서비스(주) 이강욱 대표이사는 지난 3월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KC환경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상반기에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하반기에는 불우이웃에게 쌀이나 라면을 전달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문화를 적극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육성에 기여하여 창원시의 인재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

KC그린소재

2019 임직원 워크숍

지난 3월 15일부터 이틀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9년 KC그린소재 임직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5

일 오후부터 시작된 워크숍에서 박기서 대표이사의 KC그린소재의 비전 및 미래 전력에 대한 발표와 김경철 부사장의 화력발전소 구조와 프로세스 교육을 시작으로 팀 별 KPI 중간점검 및 실행계획,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임직원간 많은 의견을 교류하여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오대산 상원사를 찾아 아름다운 설산을 보며 추억을 쌓는 것으로 이틀간의 알찬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다. (끝)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이사회 개최

2019년 3월 21일 2019년 제1차 지속가능이사회 정기회의가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이사회는 노사협의회 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경영진과 구성원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자 2017년 5월 22일 탄생하였다.

이번 지속가능이사회는 사전에 경영진과 구성원에게 서로에게 궁금하거나 알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받았고, 전 구성원과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간 지속가능이사회에서 다루었던 주요 안건을 경영진에게 설명하고, 회사 운영과 정책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속가능이사회를 통해 경영진과 구성원은 바라는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돌아가더라도 모든 길은 통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린 이번 대화를 통해 서로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이사회가 경영진과 구성원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 (끝)



KC코트렐은 2019년 3월 29일 상암동 본사 12층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KC코트렐의 2018 사업 년도에 대한 감사보고, 영업 보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와 함께,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총 6건의 부의 안건이 상정 및 원안 승인되었다.

특히 이번 KC코트렐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감사 선임의 안건과 관련하여 중요 이슈 사항이 있었다. 개정 상법 상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감사 선임의 건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만 그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새도보팅 제도(주총 미 참석 주주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여 총회 결의 성립을 도와주는 제도)를 통해 정족수 부족 없이 감사 선임 안건을 결의하여 왔으나, 개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독려를 위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새도보팅

제도가 폐지되었다.

새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상장회사들이 새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적지않은 상장회사들이 감사 선임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KC코트렐 또한 이번 주주총회가 새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감사 선임이 필요한 회기였고, KC코트렐의 임직원들은 감사 선임 안건 상정에 있어 부족한 의결권 주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위임장을 들고 폐쇄주주명부상 주주들의 거주지 주소로 직접 찾아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전국으로 출장했다.

본사 임직원들과 전국 각지 현장사무소의 임직원들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개인주방문을 지원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무사히 감사 선임에 부족한 의결권주식수를 확보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송덕호 감사를 신규 선임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송덕호 신임 감사를 포함해 KC그린홀딩스 김종규 사장이 KC코트렐의 사내이사로 새로이 선임되었으며, KC코트렐 이기환 사내이사와 김효근 사외이사가 각 재선임되었다. KC코트렐의 2018년 당기 매출액은 1,82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37억원, 당기순이익은 22억원으로 흑자를 실현하였다. (끝)